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누가복음 1:26-38)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복음 1:34-35)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임신한 처녀 이야기,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지, 지식과 이성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실재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기보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의 힘으로 희석 시키려는 수많은 도전이 존재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의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다리를 놓고 홍해를 건너 갔다고 맘대로 각색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맘대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편집 비평, 문서비평으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지성으로 다시 꿰 맞추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믿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단어는 “**두려움**” 과 “**기다림**” 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한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약 2 천년 전의 팔레스타인에서입니다. 정혼한 요셉이 자기는 이 여인의 임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말 한 마디만 하면, 당시에는 곧바로 돌 맞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미혼녀가 흔한 시절도 아니며, 여성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 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마음을 짝 채워버렸습니다.

천사는 두려움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기 앞서 평안의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v.28)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평안이었던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의 첫 메시지도 기쁨과 평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반문 하였습니다. 이에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받아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는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얇은 바닷물이 깊은 수영장 물보다 오히려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과 함께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 잡힙니다. 처녀로서 임신한다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된다 해도 마리아에게 들려진 말씀, **‘임신한 처녀’**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 놓아야 되는 요구가 바로 임신한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도전 앞에서 늘 **‘못해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이 도전은 피곤과 바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기 싫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를 내려 놓으면, 점점 하나씩 더, 그래서 결국은 모두 내려 놓아야 되는가, 걱정하는 두려움입니다. 임신한 처녀 이야기는 신앙인인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임신한 처녀 이야기가 믿어질 리 없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모든 두려움을 일시에 날려 버립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v.37)** 임신한 처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빼 버리면 소설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위대하심을 믿을 수 없다면 동정녀 탄생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동정녀 탄생은 두려움과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이 곧 기다림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v.38)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기다림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다림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다면,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38 절의 말씀은 교회에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기다림이 늘 힘든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두 가지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세상 욕심,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 문 밖에 나르면, 걱정거리, 고민거리만 가득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임재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착각과 같습니다. 기다림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두려움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만이 진정한 소망, 기다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초조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가서, 초조하게 하나님 없이 혼자 상황을 바꿔보려고 안간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을 포기하기 마십시오. 기다림이 절실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꼭 필요한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은 결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지 몰라도, 기다림의 끈을 놓치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임신한 처녀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변해 기다림이 되는, 눈물과 한숨이 변해 기쁨과 찬양이 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행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기다림을 통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속회자료]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286 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누가복음 1:26-38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껴 보셨습니까?
2. 두려움(떨림)이 기다림(설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내 안에 어떤 믿음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4.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맘껏 누리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438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기도문